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3)

선학원에서 정치 현실 목격하다

주황색 가사와 주황색 모자, 그리고 검은 승복의 주인공 진관 스님. 시국법회나 불법 수호의 장소라면 언제나 나타나는 스님이다. 불법을 수호하는 나라면 금강역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 현장을 사수한 인물이며 불법 수호에 한 길을 걷고 있는 승려이다. 현재 불교인 권위권장이다. 종로 조계사불교대학 건물 한 칸에 그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눈을 지긋이 감은 그는 계룡산 감사에서 행차 시절을 회상한다.

“50명이. 스님들이 막 그래서 인제 에 어찌 이 입산하려 왔느냐 딱 그 어 스님이 얘기하길래. 예, 앞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에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제 거그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아 저놈 바라, 저놈 바라.” 막 이렇게 그 것도 좀 너 “노래 잘 부를 수 있냐?”

진관은 감사 주지 스님이 계신 큰 방에서 이미지 노래를 불렀고 꼬마들은 박수를 치고 웃었다. 대한영 받았다. 규칙이 삼엄한 큰집의 대중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이슈였다. 첫 번째 소임은 밥 짓는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빨간 나무를 해 오는 부목 역할로 이어졌다. 그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 때문에 염불을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부목 역할은 산에 올라가 염불 연습 하라는 일종의 배려였다. (회심곡)이나 경허 스님 (참선곡) (천수경)을 모두 외었다. 뒷산 쪽포에서 크게 음을 띄우는 연습을 했다. 여기서 진관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을 고성으로 했다. 음정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다. 몇몇 염불행자들과 고성으로 염불하기 내기도 했다. 누가 음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가를. 그렇게 진관은 득음 해가고 있었다.

“책은 뭐 보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했으니까는 자기네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책을 보지 말라고 그러네. 이렇게 해서 (감사) 거그서 인제 에 승려가 되는데 4월 그 때 몇 인지는 모르고 4월 15일날 에 승려가 되요. 거그서 최초로 승려가 되는데 거그서 고 이름이 참 진(眞)자 너그러울 관(寬)자를 지어주었어요.”

행차에서 법호를 받은 진관은 사미로서 본격적인 중노릇이 시작된다. 그러나 염불 승으로 나아갈만도 한데 운수행각의 성품이 마음속에 내재했는지 또 감사를 떠난다. 왜 감사를 떠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진관 스님은 구술하지 않았다. 대전 어느 절에 유숙하려 했으나 방이 없었다. 저쪽 한 칸

에 방이 있었지만 자신의 딸이 자고 있다는 말에 바로 나와버렸다고 한다. 당시 많은 대처승들이 절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것 역시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다. 진관은 대전에서 다시 하동 쌍계사로 향했다.

“윤기원이라고 엄청난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나를 이제 묻 이렇게 열고는 보고 저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객실에서 잤는데 그 날 아침에 나보고 불공을 좀 해 주라는 거야 불공을. 아 객이 인제 불공을 하라고 하하하 불공을 하는데 어떤 불공이냐 생남불공이야. 생남불공을 나보고 아 거기 스님들이 많은 데 (나보고) 해주라고 그러잖아.”

진관은 감사에서 배운 염불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정성을 다했다. 생애 최초 부를 수 있냐?”

노래 잘 불러 염불승 생활 선학원 생활하며 사회 걱정

로 생남불공을 했다. 그는 회상한다. 그 집은 분명 아들을 얻었으며 지금쯤 유명 인사 가 되었을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거기서 다시 부산 동래 옆 기장의 관음사로 가게 된다. 주지는 향곡 스님이었다. 그런데 해 동화사 선원 생활을 끝내고 해인사 강원을 찾았다. 향곡 스님 문하를 떠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향곡 스님이 에 인제 화두를 줬는데 오늘날 말하면 간화선이 간화선. 그 화두를 주었는데 그 화두가 ‘만법이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 歸何處]’ 이런 화두예요. 화두네 이 화두를 타기 전에 계룡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하면은 어 나 인제 그 (행차)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절정에 있어서 한문은 어느 정도 다 통했던 거예요. 한문은 경전에 있는 거 이게 그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향곡 스님(1912~1978)은 1947년 봉암사 결사에서 내려졌던 화두를 진관이 참구하도록 했다. 성철·정담 등 이 시대 선각자들이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며 결사에 임했던 당시의 화두였다. 이 화두는 또 훗날 많은 선승행자들에게 내려졌다. 봉암사 수행결사가 선방 문화, 나아가서 조계종 교단 자체를 유지하고 변화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종로구 안국동 40번지에 자리한 선학원

진관은 경전을 배우러 강원에 들어가자 않고 선방에 들어 선승을 선택한 내력을 말한다. 그는 이미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경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19살 되던 해 동화사 선원 생활을 끝내고 해인사 강원을 찾았다. 향곡 스님 문하를 떠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계룡산 감사에서 배웠던 염불을 해인사에서 이어갔다. 염불승 역할을 하면서 비구계를 받았다. 사미사에서 비구승으로 승격되었다. 1968년 해인사 안거를 마치고 그는 상경하게 된다.

“선학원이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선학원에는 고 시기에 선학원에는 또 어떤 스님이 있었느냐면 백암 스님이라고 백암 스님이 거기 선학원에 인제 원장으로 계시고 그 스님이 또 동국대학에 또 이사 이사도 있고 또 선학원에 보니까 어 그 대의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원로 스님이 있었고 청담 스님이 거기 있었어요...”

진관 스님은 선학원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선학원은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안국동 로터리 근처에 있다. 선학원은 남전 스님, 석두 스님 등이 설립한 단체이며 건물은 1921년 낙성되었다. 선학원의 설립 취지는 불조의 선종을 계승하며 일제에 저항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우연하게도 그

근처는 당시 야당 정치의 중심지였다.

“1968년 8월 이후에 (민주전선)이라고 하는 (민주전선)을 신민당, 요 안국동 로터리에 신민당 당사가 있으니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돌리는데 에 둘러서 인제 에 거기서 장준하 선생 또 뭐 김영삼 뭐 인제 요런 정치인들이 안국동 로터리에서 그 인제 돌렸어요. 그 또 옆에 윤보선 집이 있었고. 윤보선 집. 윤보선 선생 집은 늦게 윤보선 대통령 만났지만은 고 때는 윤보선 대통령 뭐 만날 그것도 못 되죠 제비가 못되니까 그래서 고 1968년 음 에 인제 8월 이후로 이후로는 인제 서울에서 거주하니까 내가 살으니까 장준하 선생 집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고, (사상계) 잡지를 보고...”

진관 스님은 서울 선학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백낙준과 장준하가 사재를 털어 만든 (사상계) 잡지도 접하게 된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서당 훈장님이 나라를 걱정했던 것과 같이 진관 스님도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대열에 동참한다. 염불승이었던 진관 스님은 그렇게 장준하의 연설을 들으며 서울 생활을 이어간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일체중생의 구제보살 님소(忍性)(2)

생신의 여래 님소 보살

님소는 고쿠라쿠지에 4개원을 본 판 시설을 건설하고 민중 구제에 나섰다. 이어 1272년 55세에 중생 구제를 위한 서원인 10종 대원을 세웠다. 이생(利生)의 구제를 위한 이 원은 의지할 곳 없는 자·가난한 자·장애자·병자·노인·노쇠한 말과 소에 이르기까지 길가에 버려진 생명에게 손길을 주는 일을 비롯해 길을 만드는 일·약초의 재배·식림에 힘쓰는 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병자에게 주고 자신은 절박한 식사를 할 것 등이다. 님소가 이러한 서원을 세우고서 2년 후에 카마쿠라에 대가군이 찾아왔다. 님소는 2달 여에 걸쳐 죽을 쑤어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며, 요양소 시설을 비롯해 나병환자들이 머물 숙소를 확충하여 차별 없이 병자들을 입원시켰다. 또,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었다. 특히 마병사(馬病舍)를 지어 말발한 대로 동물도 치료해 주었다.



카마쿠라의 고쿠라쿠지(極樂寺) 서원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병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치료가 행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당시에 진언종종의 승려이자 의사였던 카지와라 쇼젠(梶原性全)이 님소의 구제 사업에 관계하고 있음을 통해 어렵듯이 알 수 있다. 그는 중세의 2대 의학서로 알려진 <둔의초(頓醫抄)>50권과 <만안방(萬安方)> 62권을 남겼다. 이 의학서에는 당시 최첨단 의술이었던 송(宋)의학과 함께 풍부한 임상경험에 입각한 의료 내용이 기록돼 있다. 카지와라는 편찬 목적을 “세상의 의사들이 이윤만 바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그 업이 비록 서투르더라도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불교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병의 증상 및 치료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저자인 카지와라는 님소의 자비 정신과 헌신적인 간호에 공명하면서 의술의 임상·연구·교육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마병사 지어 동물에게도 자비행 무연사상에 바탕두어 누구든 치료

<원형석서(元亨釋書)>에는 1287년 님소가 71세 때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아·빈궁자·병자의 구제시설 외에도 구와타니(桑谷 카마쿠라의 한 지명) 요양소를 설치하여 친소를 가리지 않고 병자들을 입원시켜 그들의 병상에 다가가 용대를 묻고 결에서 간호하였다. 20여 년간 이곳을 거처한 환자는 4만 6800명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1만 450명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무엇보다도 무연(無緣)의 사상에 바탕하고 있다. 무연은 친족 등 세속의 인연이 없거나 끊는 것을 말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내편·내편, 가진 자·못가진 자를 초월해 모든 중생을 불법에 인연을 맺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님소의 사회 활동은 대승의 보살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스승 에이존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에이존은 (법망경보살계)의 보살에 대해 “가난과 고통으로 차별받는 현실 속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것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스승의 보살도에 대한 가르침을 님소는 스스로 실천하였다. 님소의 평생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대

<성공대덕보>에 의하면 님소가 평생에 걸쳐 개창한 서원은 83개소, 공양한 당우는 154개소, 건립하거나 공양한 불탑이 45기, 서사한 대장경이 14장(藏), 지장보살 불화가 1355점,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율 3대부 186조(組), 승려에게 전한 계본이 3360권, 나환자 등 천민에게 보시한 의복이 33000벌, 다리를 놓은 곳이 189개소, 도로를 놓은 곳이 71개소, 우물을 판 곳이 33개소, 건립한 육실·병원·비인숙(非人宿)이 각각 5개소 등이라고 한다. 오늘날 생 각해도 엄청난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생전에 대승으로부터는 생신의 여래, 사후에는 천황으로부터 님소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각속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훈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육임이 보인다 | 新사주학 핵심비결 | 한국인의 별칭 자미두수 비법 | 우형 사상덕 역학·신을 심호철 편역 / 신국판 / 744쪽 / 정가 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에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기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o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총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중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중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